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리스본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은 지난 해 유니버시아드 때의 경기 모습.

‘리듬 체조 요정’ 손연재 월드컵 개인종합 금메달

리스본 대회…한국선수 처음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리스본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연재는 5일(이하 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대회 개인종합 둘째날 곤봉에서 17.550점, 리본에서 17.950점을 받았다.

전날 후프에서 17.900점, 볼에서 17.800점을 받은 손연재는 네종목 합계 71.200점으로 개인종합 정상을 차지했다.

2위는 68.150점을 받은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벨리루스)다.

전날 후프와 볼 종목에서 결점 없는 연기를 펼

치며 중간 1위를 기록한 손연재는 이날도 곤봉 경기 초반에 살짝 실수한 것을 제외하면 빠른 연기를 펼치며 첫 월드컵 개인종합 메달의 색을 ‘금’으로 장식했다. 후프와 볼, 곤봉은 1위로, 리본은 마리아 티토바(러시아)에 이어 2위로 종합별 결선에 진출했다.

마르가리타 마문, 앙나 쿠드农副(이상 러시아) 등 강적들이 지난주 홀론 그랑프리에 출전한 뒤 이번 주 휴식을 취한 점이 손연재에게 긍정적 으로 작용했다.

손연재는 주니어 시절 제11회 슬로베니아 첼린지대회와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등 지역 대회에서는 개인종합 정상을 밟은 바 있으나 시니어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프로필

출생 1994년 5월 28일 학력 서울세종고 졸업, 연세대 스포츠초저학과

신장 165cm 소속사 IB월드와이드

2009 제11회 슬로베니아 첼린지대회 주니어부문 개인종합 우승

2010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동메달

2012 모스크바 리듬체조 그랑프리 후프동메달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시리즈 대회 후프동메달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시리즈 리본동메달

2013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서리즈 리본동메달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